

# 화순군 내년 국비 1000억 확보 '현안 탄력'

### 백신·바이오·첨단의료 등 57개 사업...미래먹거리 확보 '청신호'

화순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000억원 대 국비가 반영되며 현안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2년 연속 1000억 원대 국비가 반영된 화순군은 백신과 바이오, 첨단의료 분야 등 미래먹거리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화순군은 민속 8기 들어 현재까지 군이 건의한 총 57개 사업, 1099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계속 사업 45건 998억원, 신규 사업 12건 101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난해(72건 126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국비 예산 1000억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백신·바이오·첨단의료 분야는 11건 478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사업 158억원,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 56억원, 펩타이드 개발 내성암 치료제 연구개발 10억원을 비롯해 신규 사업인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

상' 21억원이 포함됐다. 이 밖에 화순은전-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 사평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등 생활SOC 분야와 별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 관련 사업비도 반영됐다. 또 북면지구 지방상수도(39억5000만원)와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40억원),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137억9000만원) 등 389억 9000만원의 지방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정비사업비도 포함됐다. 화순군은 '2023년도 국고건의 추진상황 보고서'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직원들에게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 추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화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백신·바이오 분야 예산이 대거 반영돼 글로벌 백신 허브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청춘리턴즈' 참여자 모집 담양군문화재단, 장년층 대상

담양군문화재단이 장년층 대상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청춘리턴즈' 참여자를 모집한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해동문화예술촌 체험실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도에 ▲가족공예 ▲플라워공예 등 다양한 주제로 웨디클래스 형식으로 구성했다. 담양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담양군문화재단 문화기획팀(070-4186-0146)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전남낙농농협 나주사료공장 본격 가동

### 고품질 사료 하루 200t 생산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 공급

1일 200 t 규모 사료 생산 능력을 갖춘 전남낙농농협 나주사료공장이 준공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남낙농농협(조합장 정해정)에서 산포면 산제리에 건립한 나주사료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사진> 준공식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시장, 이상만 시의회의장, 지역 사·도의원, 정해정 전남낙농조합장, 김경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본부장 등 주요 내빈과 낙농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낙농농협은 총 92억원을 투입, 1만 2485㎡ 부지(시설면적 6211㎡)에 낙농 및 한우농가용 TMR공장 등 총 4개동을 건립했다. TMR(Total Mixed Ration)은 조사료 및 배합



사료에 각종 첨가제를 이용해 최적의 영양 균형이 잡힌 완전 혼합사료다. 이번 사료공장 준공을 통해 동시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누구나 믿고 먹일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사료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TMR나주공장 준공은 국제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

에 고품질 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광주·전남 낙농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 시도 국내산 조사료 단지 확대 등 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책화해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흥군 전기차 보조사업 개선 필요

### 출고 늦고 순서 뒤바뀌어 포기 속출...올해 목표치 절반 수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일환으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이 출고 지연에 따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민간인에게 전기승용차 87대, 전기화물차 55대 등 총 144대에 달하는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9월 현재 승용차는 55대, 화물차는 절반수준인 23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신청 후 출고까지 무려 6개월 이상 걸리거나, 그 이상으로 지연되다 보니 사업자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자들이 기다리다 못해 취소(포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의 경우 올해 단체, 개인사업자, 개인 등

전기자동차를 신청했다가 출고지연으로 포기한 사례는 무려 18건에 이른다. 또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은 사업자들이 자동차 회사에 접수한 후 지자체에 통보하는 보급체계에 있다보니 해당 자동차회사 딜러들의 영업능력과 차종유선에 따라 신청순위와 출고순위가 뒤바뀌어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 정부가 대기오염이나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당 1400만~1500만원이었던 보조금 지원비율이 올해는 1200만원대로 낮아진 것도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푸소' 결합 강진 목은지 축제 확대 운영

### 군, 11월 27일 개최...참여인원 500명으로 5배 늘려

강진군이 오는 11월 27일 '제2회 강진 목은지 축제'를 개최한다. 강진 목은지 축제는 푸소(FU-SO)체험과 목은지 담기 체험을 연계해 만든 여행 프로그램이다. 강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푸소(FU-SO)농가에서 숙박해 농촌의 정을 체험하며, 이튿날 직접 김장김치를 담아 수육과 막걸리를 즐기는 여행으로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모집인원 1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목은지 축제를 통해 신규 관광객을 유입해 강진의 다양한 관광지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깊은 맛을 자랑하는 강진 목은지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행에 참여한 관광객은 강진 목은지 레시피를 전수 받아 함께 김장을 하고, 목은지 사업단이 직접 관리 육성하여 이듬해 8월경 각자 집으로 배송받을



지난해 열린 강진 목은지 축제 모습. <강진군 제공>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여행사 여행공방(1644-77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 함평군 '1일 명예군수' 눈길

함평군이 군정 신뢰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일 명예군수' 제도를 추진해 눈길을 끈다. '1일 명예군수'는 각계각층의 군민들을 명예군수로 임명해 군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 체험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군은 9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아 이달부터 격월로 '1일 명예군수'를 위촉, 운영할 계획이다. '1일 명예군수'는 주간업무회의를 참관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군정 주요시책을 보고받게 되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체험하게 된다. 군은 26일 첫 번째 명예군수로 함평군 신용길씨를 임명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 명예군수는 이날 주간업무 회의를 참관하고 실과장으로부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함평군 역점사업 현장인 빛그린산단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는 등 군정 업무 전반을 살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 '제3기 장성군 청년협의체' 출범...28명 위촉

장성군이 지역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려진 '제3기 장성군 청년협의체'를 출범하고 청년 위원 28명을 위촉했다. <사진> 장성군 청년협의체는 청년 문제 발굴과 의견 수렴, 개선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펼치는 모임이다.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의거해 구성된다. 지난 23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 국형진 영광군 청년센터소장 강연에 이어 협의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3기 위원들은 지역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 수혜

자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장성군 청년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과 청년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3기 장성군 청년협의체가 청년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려 주시길 바란다"며 "군도 청년이 행복하고, 나아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A, AIG, 아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